

## 지식기반사회에의 대응



부산대학교 총장 박재운  
051) 510-1230

인류생활이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식기반사회란 지식이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정보화가 가속화될수록 새로운 방식은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손쉽게 복사되므로 얼마가지 않아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지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지식은 학습에 의해 유지된다. 즉 어떤 일을 과거에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했는가. 그리고 현재 전세계 각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학습함으로써 그보다 좀 더 나은 방식을 창안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개인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 즉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은 구성원들의 지식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산업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연구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만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기업 구성원들의 지식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이 계획되고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에는 한 국가를 형성하는 여러 지역들이 혁신적인 학습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들 각 지역의 학습체제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국내 각 지역의 학습자원을 결합하는 데에 인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습도시', '학습지역',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들이 그것이다. 한 국가가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계속교육망이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식 공급의 원천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이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식을 관리한다. 지식은 물론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지만, 그러한 지식은 대학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식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것이다. 한 사회는 대학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급할 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